

황종우 해수부 장관, 민·관 협력을 통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

- 충남 태안군 공시도 인근 해역에 민간 협력 바다숲 1개 조성 추진

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8일(금) 민·관 협력을 통한 바다숲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4개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. 이날 협약식에는 황 장관을 비롯하여,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, 윤희신 태안군수, 김종덕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.

* (정부) 해양수산부/ (민간) 한국전력공사/ (지자체) 태안군 / (공공) 한국수산자원공단

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▲ 수산자원과 생물다양성 증진 및 탄소중립 기여 ▲ 건강한 바다생태계 보전 및 환경·사회·투명경영(ESG) 활성화, ▲ 해조류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국제인증 노력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.

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해양수산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각각 6.5억씩 총 13억을 투입하여 충청남도 태안군 공시도 해역에 바다숲* 1.55km²를 조성할 계획이다.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사업 수행과 관리를 담당하고, 태안군은 해당 바다숲이 조성이 완료되면 주기적인 점검과 해조류 관리 등을 통해 바다숲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원한다.

* 해조류 등의 포자가 바위에 붙기 쉽도록 바위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갯닦기, 해조류 이식, 해조류 포자 확산 시설 설치, 해조류를 먹는 성게 제거 등

황 장관은 “이번 협력은 바다숲 조성을 통해 정부와 민간, 공공이 함께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좋은 사례”라며, “앞으로도 바다숲 조성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동양 (051-773-5530)
		담당자	사무관	정윤석 (051-773-5531)